

홈 > 뉴스 > 기획 > 신탐라순력도

개국신화와 결혼 이야기 품은 마을 '온평리'

혼인지축제 개최 등 주민 모두가 출연자로 나서

데스크승인 2014.03.09 좌동철 기자 | roots@jejunews.com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는 수렵생활을 하던 지배세력이 농경문화를 만나 국가 체계를 갖추게 된 신탐라국 개국 신화와 함께 결혼 이야기를 품은 마을이다.

제주의 시조인 고·양·부 삼신인(三神人)은 사냥을 하다 온평리 바닷가에 떠밀려온 나무상자를 발견한다. 이 속에는 벽랑국의 세 공주와 송아지, 망아지, 오곡씨앗이 있었다.

비록 신화이지만 세 공주는 농경세력이 입도했다는 설(說)이 제기되고 있다.

삼신인과 삼공주가 혼례에 앞서 목욕재계한 연못이 '혼인지(婚姻池)'다. 그래서 제주의 자손들이 번창하게 된 뿌리는 혼인지(도기념물 17호)로 꼽히고 있다.

이 마을에선 2010년 제1회 혼인지축제를 열었고, 지난해 4회 째를 거듭하면서 농림부로부터 농어촌마을축제로 선정됐다.

축제에선 거리 행렬과 전통 혼례식, 혼인지 설화 연극을 비롯해 해녀춤, 난타 공연, 사투리 경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제공해왔다.

1960년대 이후 제주 고유의 전통 혼례가 사라지자 주민들은 뜻을 모아 지난해 '서민 혼례' 잔치날을 재현했다.

친족들이 보는 앞에서 예장을 쓰고, 말을 탄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떠나는 데 친족 대표인 '우시'와 '들러리'(친구들)가 따르는 등 옛 방식을 따랐다.

지난해 농·어촌 체험관광의 세계화를 위해 열린 '루랄(Rural:시골의) 프로젝트'에 뽑힌 온평리에선 안토니 데니스 남아공 대사 부부가 외국인 체험단이 보는 앞에서 전통혼례를 올려 눈길을 끌었다.

마을에는 480가구에 1400여 명이 살고 있는데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많다보니 주민 모두가 공연자 또는 출연자로 활약하고 있다.

칠십리축제에서 읍·면 대표가 아닌 유일하게 마을(里) 단위로 출전하는 팀이 온평리다.

마을 설촌은 약 800년 전으로 현씨와 고씨, 강씨, 송씨, 이씨가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마을에 오름이나 냇가, 계곡이 전혀 없이 밋밋하여 예로부터 '멀경 열운이'라 불려왔다. 열운이는 마을의 옛 지명으로 1653년 탐라지에는 '열운포'로 기록됐다.

이후 1915년 도사제(島司制) 실시 후 '온평리'가 공식 마을명이 됐다. 따뜻하고(溫), 산이 없고 평평하다(平)하는 뜻으로 마을 이름이 개칭된 것이다.

과거에는 아열대 식물이 마을 전체를 덮을 정도로 숲이 울창해 민가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지금도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황근이 자생하고 있다.

주민들은 감귤과 무를 주로 생산하는데 무세척공장은 12곳이나 이를 정도로 부농이 많다.

물 빠짐이 좋은 화산회토여서 감자와 옥수수, 당근도 잘 자란다.

해안선은 6km에 달하고, 해녀는 250여 명이 있어 소라와 미역, 톳 등 해산물도 주요 소득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한편 온평리는 '탐라의 만리장성'이라 부르는 환해장성이 가장 잘 보존돼 있다. 2120m에 이르는 온평 환해장성은 고려시대인 1270년 삼별초 군대의 입도를 막기 위해 축조가 시작됐고, 조선시대에는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증축됐다.

온평 환해장성은 역사적인 방어 유적으로 조명을 받고 있으나 해안도로 개설 이후 허물어지고 있어 보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